지속가능한 스위스 여행.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을 좀 더 재밌게, 스위스테이너블(Swisstainable)

스위스에서는 자연을 더 가까이, 직접 체험하세요
정통 방식으로 현지 문화도 체험해 보세요
가장 스위스다운 생산물을 소비하며
자꾸 옮겨 다니기 보다는 한 곳에 더 머물러 보세요
대중교통으로 못 갈 데가 없는 스위스니까요

태고의 자연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관광지로서의 스위스는 웅장한 산, 원시 계곡, 신비스런 숲을 연상시킨다. 스위스의 자연은 에너지를 건네는 힘을 가졌다. 앞으로도 수십 수백 년 동안 이런 힘을 보존하기 위해 스위스가 새로운 캠페인을 론칭했다.

바로, '스위스테이너블(Swisstainable)'이다. 지속 가능하다는 뜻의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에 스위스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지속가능한 여행을 논할 때, 무언가 결여된 여행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지속가능한 여행이 더 깊고 넓은 인식과 더 큰 즐거움을 의미해야 한다. 이런 의도와 목적으로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스위스 여행법을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스위스테이너블은 맥을 짚을 때와 같이 차분한 마음으로 자연의 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여행법을 지속가능한 여행으로 규정하였다.
1. 자연을 한층 가까이,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2. 정통적인 방식으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며
3.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며
4. 한 곳에 더 오래 머물고 깊이 파보는 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스위스테이너블은 책임감 있는 여행으로 향하는 길을 제시한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책임감 있는 여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기본 팁을 제안한다.

1. 교통
스위스는 대중교통의 천국이다. 기차로 못 가는 곳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마이클라이밋(myClimate), 앳모스페어(atmosfair), 스위스 항공(SWISS)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2. 숙박
스위스에는 지속가능성에 촛점을 맞춘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이런 숙소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3. 숙박 기간
숙소를 계속 옮기기 보다, 한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휴식에도 좋을 뿐 아니라, 현지 환경이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스위스에서 가장 외딴 계곡 조차도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하룻밤이라도 더 머물며 주변을 여행해 볼 것을 권한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4. 체험
지속가능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액티비티가 마련되어 있고, 스위스정부관광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을 할 수도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갈 예정이다.

5. 깨끗한 물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물로 유명하다. 물통 하나를 준비하면 여행하는 동안 내내 도심 곳곳에 있는 분수대에서 공짜 물을 실컷 마실 수 있다.

Facts and figures.
지속가능성에 있어 스위스는 선구자임에 틀림 없다. 풍경 뿐만 아니라, 시설 면에서도 탁월하다.

1. 모빌리티
매일 9,000 대의 기차가 스위스 연방철도 3,000km 가량을 운행한다. 심지어 작고 외딴곳도 대중교통으로 찾아갈 수 있다. 스위스 연방철도(SBB)는 매년 3 백만 장 가량의 트래블 카드를 판매한다.

2. 물
스위스는 도심 한복판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여행 중에 특별한 체험이 되어준다. 약 1,500 개의 호수를 품은 스위스는 유럽을 대표하는 강, 라인(Rhine) 및 론느(Rhône) 등 수많은 강의 원천이다.

3. 자연 보호
총 18 개의 자연공원이 국토 육지의 1/7 (6,109 km2)을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다. 지난 125 년 동안 스위스 산림 법을 통해 스위스 전체 국토의 30%를 산림으로 보호했으며, 이 수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4. 공기
스위스의 공기 질은 훌륭하다. 치료 효과가 있는 기후로 유럽에 알려지며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된 사연이 있는데, 이미 1853 년에 다보스(Davos)의 산 공기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며 영국인들이 스위스로 휴양을 오기 시작한 역사는 유명하다.

5. 음식
국제적인 여행지와 비교해 봐도, 1 인당 소비하는 유기농 제품의 양은 스위스가 가장 많다. 스위스 기업들도 벌써 수년째 지속가능성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6. 재활용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에 있어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다. 거의 90%의 PET 플라스틱병이 새로운 형태로 재활용된다.

캠페인 영상:
https://youtu.be/51H4rCWrSGc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